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탁계석



우리가 즐겨 찾는 노래방 열기가 머지 않아 국민합창운동에 옮겨 불을 태세다. 각지에서 많은 합창경연대회가 열리고 방송에서도 '남자의 자격'에 이어 '청춘합창단'이 오디션에 마쳤다. 청춘합창단 응시자들의 제 각기 사연을 보는 시청자의 눈시울이 뜨겁다.

그 뿐인가. 가수가 되고 싶어 수만 명이 장사진을 치는 광경이 방송의 전파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유독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가무(歌舞)민족의 원형질(DNA)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노래방 형태로 상륙한 이후 가공할 속도로 확산되었고 음주 후에 즐기는 국민 오락이 된 지 오래다.

숨 가쁜 산업화, 근대화물 거처면서 노래방은 스트레스 해소의 탈출구요, 가장 수월한 사교 공간이었다. 그런 '노래방'은 한국인 특성이 '폭탄주'와 함께 '빨리빨리'의 속성을 가장 잘 배웠다.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잘 갖춘 소통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해 G20정상회의를 치렀고 국가브랜드를 생각하는 고급화, 선진화의 길목에 서서히 일상 소비문

화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우리가 밖에 내놓은 한류문화의 반응에 우리 스스로 놀라면서 자긍심과 함께 그동안 확실히 답답해 온 것들을 새로 보고, 보다 양질의 문화 트렌드를 찾아야 할 때다.

## 노래방과 열린합창의 차이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room) 문화' 강국이다. 유럽 사교문화의 상징인 '살롱'이 들어왔지만 본질이 왜곡된 채 '뽕살롱'이 되어 버렸다. 전화방, PC방, 찜질방, 키스방, 온통 밀폐된 방 천국이 고경찰과 답답 공무인들이 불법단속을 하지만 업주들의 신중귀찮한 아이디어엔 날 박자가 없다. 사실 군사정권 시절 '댄스' 역시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져 오다 '스포츠크스'란 이름으로 사면 복권된 후 지금은 세상의 모든 층을 추는 자유시대를 맞이 않았는가. 수준 높은 문화는 낮은 문화를 끌어올

리는 강한 힘이 있는데 일단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아무리 그림에 문외한이라도 오랫동안 좋은 그림을 벽에 붙였다 하면 그때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미의 경험을 통해 눈이 높아지면 지금 한 것에 등을 돌리게 되는 이차다.

이런 원리적 처방을 하면 사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름다운 환경에서는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역시 미(美)에 담겨진 자정능력 때문이다. 마음에 고상하고 고급한 정서를 많이 느끼면 고상한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크게 발산

(發散)과 승화(昇華)의 두 개념이 있는데 전자는 스포츠, 오락 개념이고 후자는 내면에 호소하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합창은 남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소리를 억제해서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참여 인격적인 존중이 없으면 연습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합창이 발달한 사회는 그만큼 성숙할 수 있고 네트워크 능력을 올릴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은 솔로(Solo)엔 약하지만 모여야 하는 합창(Chorus)에 강해 수적으로도 엄청나다. 양질의 문화는 체험의 산물이고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 화창시절 합창반을

못 잊어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동아리를 결성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실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보다 하모니 합창을 해보면 왜 이토록 멋진 노래를 모르고 지내 왔을까 후회한다고 한다. 국민들 모두 1(인)1(拔)의 기능을 배우면 삶도 윤택해지고 즐기는 방식도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하모니를 융합해 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가들도 단상을 점유하거나 해머로 문을 따는 물격대 이미지 대신 유티와 유머의 세련된 멋을 풍기려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는 외환위기(IMF) 때 실에 빠진 아버지들을 위해 '아버지합창단'을 창단했는데 지금 10개가 넘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히틀러는 전후 독일의 통합을 합창으로 이뤄냈지만, 우리는 노래방 선수(?)들이 열린 합창 공간으로 이동한다면 더 멋진 능력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가 밝아지면 튼튼한 문화강국이 되지 않겠는가. 잘 지어진 공공의 유희 공간을 활용하고 밤에는 쉬는 예식장도 합창의 꿈을 펼칠 멋진 공간이 아니겠는가.

〈한국예술비평가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정재훈

관절 수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발달은 관절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피부를 절개하고 관절을 개방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했다. 하지만 관절경 수술은 관절에 5~7mm 정도의 구멍을 3~4개 내어 구멍을 통해 관절경이라는 기구를 넣어 관절 속을 들여다 본다. 그리고 이상이 발견되면 구멍을 통해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넣어 수술을 한다. 장점은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절을 크게 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

지만 절개하면 개방된 부분만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관절 전체를 진단할 수가 없다.

수술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관절경을 통해 보이는 영상을 모니터에 확대해 보면서 수술을 한다. 마치 현미경을 통해 확대하면 더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부분에 구멍만 내면 관절 전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전체에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발전은 인공 관절이다. 관절의 물렁뼈가 완전히 닳아져서 통증이 심할 때 하는 수술이 인공 관절이다. 마모되어 닳아진 뼈를 얇게 잘라내고 그 사이에 금속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고, 위 아래 금속 관절 사이에 폴리테틸렌이라는 물질로 만든 베이

## 관절 수술 두려워 하지 마세요

링을 삽입한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인공 관절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90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 기법과 인공 관절의 발달로 수술 후 평균 운동 각도가 125~130도 수준이다. 최근에는 최소절개법이 개발돼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인공 관절 수술은 약 15cm 정도의 절개를 통해 수술을 했지만 최소절개법은 8~10cm 정도의 피부절개만으로 수술을 한다.

또 최근에는 로봇이나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 관절 수술이 등장했다. 인공 관절 수술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뼈를 절단할 때 관절의 정렬이 잘 되도록 자르는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90년대 중반 인공 관절 수술을 비롯한 인공관절 수술이 개발되

면서 발전했다. 과거에는 관절염이 손상되면 아껴쓰다가 마모가 심해지면 인공 관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공관절수술이 발전하면서 관절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게 됐다.

연골 재생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미세 천공술은 연골이 없어서 노출된 뼈 부위를 3~4mm 간격으로 5mm 정도의 구멍을 내어 주는 수술이다.

골연골이식술은 손상된 부위를 5~10mm 씩 원통형으로 파내고 다른 부위에서 건강 한 연골을 똑같이 원통형으로 파와서 심어 주는 수술이다. 연골세포 이식술은 1차 수술에서 자기 연골을 조금 채취해 연골 세포를 배양해 2차 수술에서 연골이 없어진 부위에 이식해 주는 수술이다.

관절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조기에 진단해 발달된 치료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관절 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로365병원 원장〉

## 기고



나경택

연일 폭염이다. 가끔 소나기가 무더위를 식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잠깐이다. 동물원 동물들도 이맘 때면 피서를 즐긴다. 코끼리는 매시간 샤워를 하거나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고, 코뿔소는 샤워 분수기에 수시로 뛰어들며, 물개는 하루 종일 웅덩이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한다. 사람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위가 얼마나 무섭겠는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이글거리는 한낮 도시의 열전(炎天)을 쳐다보면 영 끝까지 않을 것만 같은 맹렬한 햇볕이 두렵기까지 하다.

## 어르신들 '폭염을 피하는 법'

이 햇볕은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근무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어르신들도 갈수록 여름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자의 경우 더위에 대응하는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흔히 여름철에 '더우면 힘도 없고 나른해 밖에 나가기도 싫고 밥맛도 없다'고 호소한다. 어리광이 아니다. 노인이 되면 자율신경조절기능이 떨어지고 체액양도 적어져서 탈수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섭씨 32도가 넘으면 뇌졸중 위험이 66%가 늘어나고,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특히 더 위험해진다 고 한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농축돼

혈전이 만들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한여름 태양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아업 휴식기 일시중단' '조치' 등은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현명한 조치였다. 대신 근무시간을 연장해 소득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게 한 것도 배려 깊은 행정으로 생각된다.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도 폭염으로 인해 며칠간의 휴가기간을 갖고 있다. 또 케이트볼, 파크골프 등 야외 운동시설에서는 한낮 이용을 삼가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권

유하고 있다. 우선 보리차라든가 이온음료 같은 물을 시원하게 자주 마시고, 더운 곳에는 장시간 있지 않아야 한다. 또, 열사병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않을 때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외에도 '가볍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 활동강도를 조절해야 하며, 주장치 된 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등의 예방책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가 덧붙이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마음가짐'. 중국 속담에도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서늘해진다(心靜自然涼)'는 말이 있다. 노인일수록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는 능력은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코끼리나 물개의 요란한 피서보다는 사자나 호랑이의 '특별할 것 없는' 피서를 눈여겨보자. 백수의 제왕이라 한들 어찌 자연에 맞서려. 일상의 욕망과 야성(野性)을 잠시 내려놓고 빈둥빈둥, 어슬렁어슬렁 해보는 것이다. 저 사자와 호랑이처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 청소년 극단 선택 막도록 가정에서 대화 많이 하세요

최근 정치권이 가정, 직장의 화두가 소풍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절실한 게 부모와의 소통 아닌가 싶다. '공부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1등, 반대로 행복 순위는 꼴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당 공부 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인 33.92시간보다 상당히 길었지만,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걸로 조사됐다고 한다.

행복지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도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즉 '삶에 만족한다'는 아이는 풀준한 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6명 중 한 명은 '외롭다'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만 하지 아이가 학교에서 느끼는 고충, 교우관계, 정서적 고민이나 충동 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 될 경우 학생들은 극도의 불안함을 갖게 되며 일탈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심한 경우는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10대의 자살률로도 증명된다. 지난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정 불화, 성적 비관, 이성 문제, 왕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29%나 됐다. 이는 아이가 죽을 결심을 할 만큼 힘든데도 주위 어른들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

최선의 예방책은 소통이라고 본다. 항상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대화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기아차 노조원 임협 재합의 받아들여야

기아자동차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27일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됐던 노사간 재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니 다행이다.

이번 임협 재합의안은 사회공헌기금 50억 원, 추석 연휴 휴무 1일, 재직 중 사망 조합원 유자녀 고교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가적인 임금인상은 없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기본급 9만 원(5.17%) 인상, 성과·경력급 300%+700만 원 지급, 회사 주식 80주 지급 등 역대 가장 많이 오른 1차 잠정합의안을 뚜렷한 이유없이 부결시켰다. 이런 노조원들의 선택은 심각한 경제난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이번 재합의안에서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27일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됐던 노사간 재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니 다행이다.

## 더 심해진 학교폭력, 학교는 구경만 할 건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2006년 201명이던 가해 학생이 지난해 956명으로 5년 새 4배 이상 늘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432명에서 77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은 학교 측이 퇴학이나 정학 등 엄한 처벌보다 교내 봉사, 특별교육, 서면 사과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에선 가해 학생 956명(이 피해 학생(692명)보다 더 많아 집단폭력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중등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게다가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여학생 폭력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폭력에 물든다는 건 참으로 격정스러운 일이다. 폭력에

익숙해지면 폭력을 당연시하거나 스스로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게 마련이다. 이렇게 불 배폭력의 확산은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 그런데도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교 명예'를 내세워 은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처벌보다는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 그에 걸맞은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사와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영화나 TV의 폭력성이 학생들에게 전이되고, 유행영영으로 인한 일탈의 소지가 큰 만큼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학교폭력은 가해·피해 학생을 막론하고 모두의 인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無等鼓

프랑스 명품 샤넬은 샤넬 브랜드 100년 역사상 한국에서 진기한 신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 오픈 당일 매출이 무려 4억 6000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단일 매장 오픈 역사상 최대 매출 기록이다.

또한 한국에서 거리를 걸다 3초나 5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 백'과 '5초 백'이라는 별명이 붙은 루이비통 가방과 구찌 가방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샤넬의 대표적 가방 '2.55'와 '클래식 리리즈' 가격을 25% 올리자 울리자 울리자 전 이 가방을 사두려는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려 5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방이 '품절'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도 한다.

이같은 한국인의 명품 광풍은 명품 브랜드 분사까지 놀라게 하고 있다.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유럽 본사에서 한국이 요즘 왜 이러는 거냐'는 문의를 해올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명품 狂(狂)들로 인해 명품회사들은 한국인들을 거의 '봉' 수준으로 취급한다. 최근 한-EU FTA가 발효됐

지만 도리어 가격을 올렸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슬며시 가격을 내렸다. 또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국내에서 427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연매출 4000억 원이 넘는 브랜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루이비통은 매출의 0.01%인 5855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았다.

크리스찬디올 쿠튀르 코리아도 지난해 300억 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기부금으로 내놓은 게 고작 1만 원이며, 구찌도 매출액 2730억 원 대비 0.0136%인 3728만 원을 기부금으로 내놓았을 뿐이다.

이들의 횡포는 한국에 그치지 않는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는 국내 브랜드 수수료의 3분의1 정도인 10~12% 밖에 백화점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명품회사의 영리한 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성숙한 소비의식을 가진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산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기자 02-773-9331 기자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